

2020년 4월 29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복지정책과 과 장 안유영(044-201-2371), 사무관 김철기(2372) / 제공일 : 4월 28일(총 6매)

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

## 전국 591만가구에서 반려동물 856만마리 키운다 - 「2019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발표 -

### 《 주 요 내 용 》

- ◇ (조사배경) 반려동물 양육현황 확인, 동물보호 의식 수준 등 실태 파악을 위해 「'19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실시
  - \* 양육여부, 입양경로 등 53개 항목에 대해 2019. 10. 31. ~ 11. 7.까지 국민 5천명 대상 온라인 패널조사 실시 (신뢰수준 95%±1.39%p)
- ◇ (조사결과) 동물보호 의식수준이 매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591만 가구이며, 개 495만가구 598만마리, 고양이 192만가구 258만마리로 파악
  - 동물등록 참여율은 지속 증가('18년 50.2% → '19년 67.3%)하고 등록 제도 인지도 상승(모른다는 답변 '18년 31.4% → '19년 19.6%)
  - 지인간 거래를 통한 입양이 다수(61.9%)를 차지하나, 동물보호시설 입양은 지속 증가('18년 3.7% → '19년 9.0%)
  - 반려견 소유자 62.9%가 소유자 안전관리 의무를 준수하고 있으며, 국민의 74.8%는 반려동물 소유자에 대한 의무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

□ (개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19년 동물 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 농식품부는 2006년부터 동물보호·복지 관련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해왔으며,
- 금년에는 국민 5천명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양육여부, 동물등록 여부 등 53개 문항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 \* (조사대상) 지역별·성별·연령별 비례표본으로 추출한 전국 20~64세 5천명
- \* (설문문항) 53개(양육여부·동물등록·입양경로·유기동물 입양의사·안전관리·동물학대 등)
- \* (조사기간 및 방법) 2019.10.31. ~ 11.7, 온라인 패널조사
- \* (신뢰수준) 95%(±1.39%p)

□ (조사결과) 「'19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가구는 591만 가구(전국 2,238만 가구 환산시)로 '18년 511만 가구 대비 80만 가구가 증가하였다.

- 개는 495만 가구에서 598만 마리를, 고양이는 192만 가구에서 258만 마리를 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 양육 가구 추이 : ('15) 21.8%(457만 가구) → ('17) 28.1%(593) → ('18) 23.7%(511) → ('19) 26.4%(591)
- \* 가구당 평균 마리수 : ('15) 개 1.28마리, 고양이 1.74마리 → ('17) 개 1.30, 고양이 1.75 → ('18) 개 1.30, 고양이 1.50 → ('19) 개 1.21, 고양이 1.34
- \* 전국환산 마리수 추이 : ('15) 개 513만마리, 고양이 190만마리 → ('17) 개 662, 고양이 233 → ('18) 개 507, 고양이 128 → ('19) 개 598, 고양이 258

② 동물등록제\* 참여율과 동물등록제 인지도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의무화

- 동물등록에 참여한 사람은 67.3%로 '18년 50.2% 대비 17.1%p 증가하였으며, 등록제를 모르는 사람은 19.6%로 '18년 31.4% 대비 11.8%p 줄어들었다.

- \* 동물등록 답변 추이 : ('15) 25.3% → ('17) 33.5% → ('18) 50.2% → ('19) 67.3%
- \* 등록제도를 몰라서 동물 미등록 : ('17) 31.3% → ('18) 31.4% → ('19) 19.6%

③ 반려동물의 입양경로는 지인간 거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 입양경로는 지인간 거래가 61.9%, 펫샵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이용이 23.2%, 동물보호시설에서 입양은 9.0%로 파악되었다.
- 또한 동물보호시설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할 의사는 사람은 26.2%로 나타났으며, 입양을 어려워하는 주요 이유는 질병·행동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43.1%), 연령이 높아서(16.9%), 입양 방법·절차를 잘 몰라서(12.3%) 등으로 조사되었다.

\* 입양경로 : 지인간 거래('18년 61.0% → '19년 61.9%), 펫샵(31.3 → 23.2), 보호시설(3.7 → 9.0)

④ 국민의 60% 이상은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를 준수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외출시 목줄·인식표 착용, 배설물 수거 등 반려견 소유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62.9%로 나타났으며,
- 국민의 74.8%가 반려동물 소유자에 대한 의무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47.6%는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동물학대 처벌 수준 평가 : 약하다(47.6%), 보통(41.4%), 강하다(11.0%) 순

□ 농식품부 안유영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와 반려동물 마릿수가 증가함에 따라 동물등록 및 안전관리 의무 준수가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 “반려동물을 기르는 국민께서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사는 문화 조성을 위해 동물등록·안전관리 의무와 펫티켓 등을 잘 지켜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참고 1**

**2015~2019년 국민의식조사 주요 결과**

구분		'15	'17	'18	'19
조사방식*		3천명 전화조사	5천명 전화조사	2천명 면접조사	5천명 온라인조사
반려동물 양육가구 비율		21.8%	28.1%	23.7%	26.4%
반려동물 양육가구(전국환산)		457만가구	593만가구	511만가구	591만가구
가구당 평균 양육 마릿수(개)		1.28마리	1.30마리	1.30마리	1.21마리
가구당 평균 양육 마릿수(고양이)		1.74마리	1.75마리	1.50마리	1.34마리
전국 환산 양육 마릿수(개)		513만마리	662만마리	507만마리	598만마리
전국 환산 양육 마릿수(고양이)		190만마리	233만마리	128만마리	258만마리
동물등록 여부 비율		25.3%	33.5%	50.2%	67.3%
입양 경로	지인간 거래	-	63.7%	61.0%	61.9%
	펫샵	-	21.3%	31.3%	23.2%
	보호시설	-	4.8%	3.7%	9.0%
동물학대 목격시 신고한다		12.2%	-	-	45.0%

\* 연도별 조사표본 숫자와 조사방식이 달라 기존 수행된 조사들과 단순비교는 어려움

**참고 2**

**2019년 국민의식조사 결과 인포그래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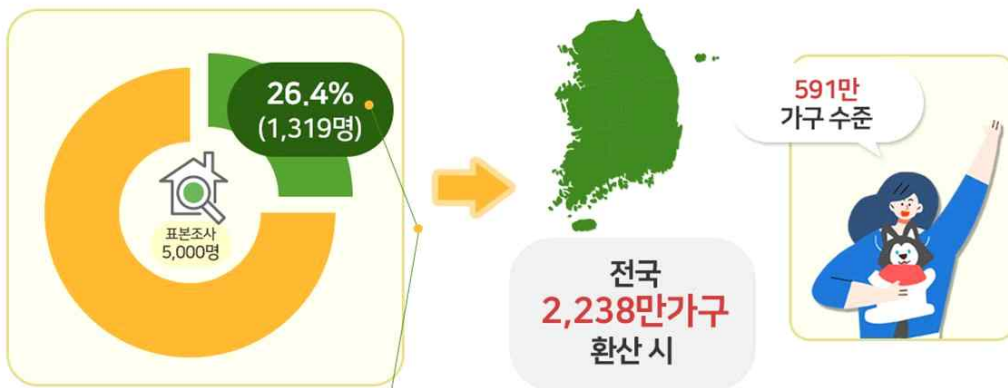
농림축산식품부

2019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 지금 반려동물과 함께 지내고 있나요?

(지역 연령비례표본 5,000명대상, 온라인패널조사)

**반려동물 양육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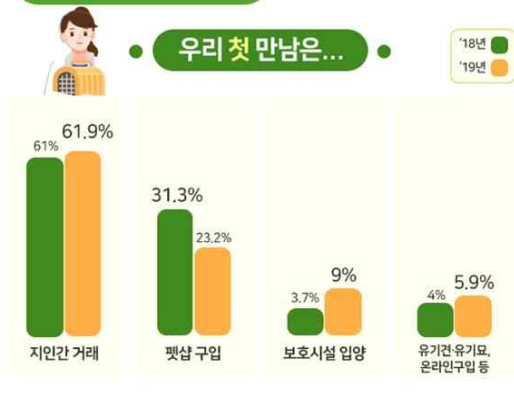
**반려동물 양육비율**

(단위 : %, n=1,319, 중복응답, 반려동물 소유자)



**반려동물 입양경로**

**유기동물 입양 의향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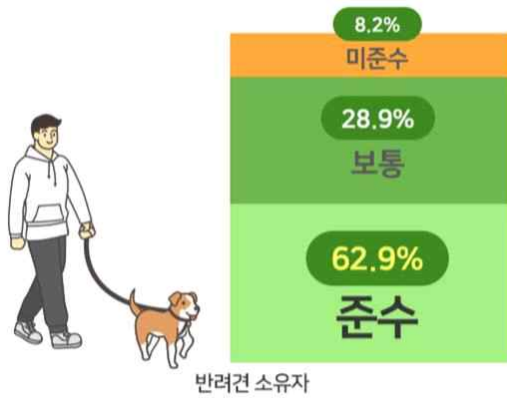
### 동물등록 참여율



### 반려견 미등록 이유는?



### 소유자 안전관리 준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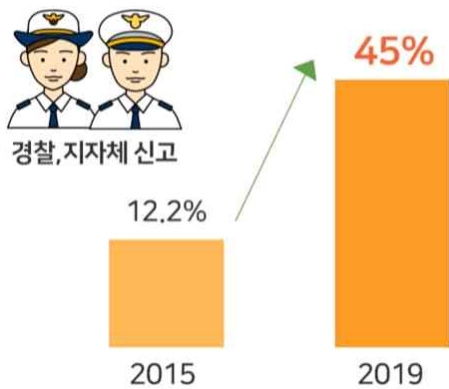


반려견 소유자

### 반려동물 소유자 의무교육 도입여부



### 동물학대 목격 시 신고여부



경찰, 지자체 신고

### 동물학대 처벌 수준 평가

